

대국의 절망과 희망

리우에서 쿠리치바까지 브라질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브라질은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가

포르투갈 리스본을 떠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도착해 숙소를 찾아갈 때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중국과 네팔, 인도에 이어 유럽을 누비던 6개월 동안 거의 타지 않은 택시였다. 아무리 오지라도 모든 호텔이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주었지만, 리우의 호텔은 달랐다.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위험해 추천할 만하지 않다'면서 택시를 권유했다. 세계 배낭여행의 바이블인 론리 플래닛도 리우의 치안이 불안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이를 무시하기도 힘들었다.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할 때 호텔 주인이 주변의 식당을 소개해 주면서 처음 던진 말도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지갑을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였다. 브라질에 발을 디디면서 '치안 불안'이 일상화돼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실제로 그런 불안 요소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심지어 리우 시



'구원자 예수상', 리우 서쪽 코르코바도 산에 있어 시내 어디서나 보이며, 리우의 아이콘이다.

내 중심부와 그리 멀지 않은 산타 테레사 지역의 호텔에서 아침에 길거리로 나가면 노숙하는 사람, 아침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상파울루 도심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는 노숙자인지 부랑인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있어 긴장해야 했다.

하지만 리우에서 상파울루, 쿠리치바를 거쳐 이구아수 폭포까지 브라질 동남부를 여행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행길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헛갈리지 않고 길을 찾아가고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낙천적이었고 친절했다. 나중에는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소지품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내가 머쓱해졌다.

세계 어느 곳이든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있겠지만, 브라질, 특히 리우나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의 경우 그 편견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다. 물론 통계적으로 범죄율이나 빈곤층 비율이 높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들이 있을 것이고, 리우나 상파울루는 '불안한' 도시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기엔 브라질의 매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괴물 도시' 리우와 상파울루의 두 얼굴

브라질의 양대 도시인 리우와 상파울루는 한 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다양성과 복잡성이 뒤엉켜 있고, 그것이 때로는 혼돈스럽기까지 한 '괴물(monster)'과 같은 도시다. 인구가 2억을 넘어 세계 5위, 경제규모는 세계 7~8위에 이르는 중남미의 맹주지만, 빈부 격차가 세계 최고이며, 한편에서는 세계 최대의 '카니발'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는 브라질 사회의 축소판이다. 리우와 상파울루를 여행하는 진짜 맛은 그 이색적인 다양성 속에 몸을 담그고 느끼는 것이다.

사실상의 수도인 리우는 세계 3대 미항인 리우 항을 비롯해 볼거리가 즐비하다. 리우 시내 서쪽의 코르코바도 산 704m 언덕에 있는 '구원자 예수상'은 시내와 항구, 대서양을 조망할 수 있는 리우의 아이콘이다. 예수상처럼 팔을 벌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예수상이 생각보다 커서 고개를 완전히 뒤로 꺾고 바라보아야만 한다.

앞바다에는 고깔처럼 생긴 멋진 섬이 하나 있다. 영어로 슈거 로

프(Sugar loaf)라고 하는 설탕봉이다. 리우가 설탕 수출로 흥성이던 16~17세기 설탕을 배에 싣기 편리하도록 원뿔형의 덩어리로 만들었는데, 섬 모습이 이걸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봉우리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해가 질 때 붉게 물들어가는 시내와 멀리 언덕 위의 예수상을 바라보는 것은 일품이다. 석양 무렵엔 아베크족도 넘쳐 곳곳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춘다.

이외에도 리우에는 명물들이 많지만, 뭘니 뭘니 해도 최고의 멋은 끝없이 펼쳐진 해변이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답다는 코파카바나 해변을 비롯해 이파네마 해변 등 해변이 이어져 있다. 강렬한 태양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 백사장엔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그 풍경도 아름답지만, 세상사를 잊게 하는 묘한 분위기가 흘러넘친다. 저 괴물 도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슬픔과 절망, 처참함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을 갖게 만드는 곳이 바로 리우의 해변이다.

리우에서 버스로 5~6시간 정도 걸리는 남반구 최대 도시 상파울루 역시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난해한 도시다. 파울리스타 거리는 브라질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도시적 낭만이 넘친다. 루즈역과 상벤토역, 세역을 중심으로 한 센트로에는 1960년대 지어진 독특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몰려 있다.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남미 특유의 낙천성과 여유가 넘친다. 도시 곳곳엔 극심한 빈부 격차가 빚어내는 절망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상파울루는 도시 인구가 1200만 명, 인근 지역을 포함한 인구가 1900만 명에 달한다. 거기에는 수준급의 박물관과 문화센터가 110개, 실험적인 극장과 공연장이 400개를 넘으며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이 1만 2500개에 이른다. 여기에 1만 5000개에 달하는 대중적인 펍에선 매일 저녁 흥겨운 파티가 열린다. 상파울루 사람들이 폭력과 혼잡, 매연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다양성과 경제적 기회 때문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삶을 즐기고 있다. 그게 바로 브라질의 매력이며, 그걸 몸으로 느끼는 것이 상파울루 여행의 참맛이다.

쿠리치바에서 찾은 브라질의 희망

리우와 상파울루에서 브라질의 다양성과 잠재력, 낙천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희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상파울루에서 남서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쿠리치바에서 드디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인구가 170만 명으로 브라질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지만, 친환경 도시설계의 모범으로 꼽히며 '세계의 환경수도'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도시다.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며 도시 문제가 폭발해 수도를 리우



Brazil



코파카바나 해변. 항상 사람들로 붐비며, 세상사의 시름을 잊게 만드는 묘한 매력 있다.

에서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던 1960년대, 쿠리치바는 친환경 도시개발에 착수해 도시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다. 시내를 물론 외곽 곳곳에 공원을 조성해 1인당 녹지면적이 노르웨이 오슬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간선도로와 지선을 연결하는 독특한 교통시스템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난을 해결했다. 이곳의 급행간선버스(BRT) 시스템은 서울 중앙차로제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빈곤과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브라질에 이런 멋진 도시가 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이 모인다면, 국가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계없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음을 쿠리치바는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흔들리는 남미의 대국 브라질에서 확인한 진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오는 8월 열리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지카 바이러스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브라질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더 심어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작은 사고라도 하나 나면 브라질에 대한 이미지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그런 인식을 한다고 해도 사실에서 크게 빛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브라질은 그만큼 취약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반대로 역동성과 건강성, 특유의 낙천성, 친근함과 낭만을 가진 나라다. 브라질을 가보지 않고 부정적 인식만 갖는다면 그건 개인의 손실일 것이다. 이번 올림픽이 균형 잡힌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